3. 분재원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분재 문화의 중심에 있는 오미야 분재 마을의 분재원은 세대를 초월해 전승된 재배 기술을 살리면서 새로운 바람도 조금씩 불어넣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분재원은 분재 판매 외에도 주로 정치인이나 의사, 경제계 유력인사 등 부유층이 소유한 분재의 재배 및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분재원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분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기변동의 영향으로 새로운 소유자를 위한 분재의 재배 및 판매와 같은 사업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분재원은 개인에게서 분재를 매입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재가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미야의 분재원은 나무의 육정보다 재배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분재원은 다른 곳에서 자란 나무를 매입한 후 세심하게 모양을 잡아주고, 수십 년이라는 기간 공을 들여 살아있는 예술작품으로 만듭니다. 오미야에 있는 7 곳의 분재원은 모두 독자적인 방법으로 분재를 재배하고 있어 각기 다른 즐거움을 준다는 점이 분재 팬들에게는 매력적입니다. 분재 지도를 실시하는 분재원도 있습니다.